

#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우)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02)765-3011~3 [www.kr.emb-japan.go.jp](http://www.kr.emb-japan.go.jp) **Twitter** JapanEmb\_KoreaK

**Facebook** <http://www.facebook.com/jmunwhawon>







## Cool Japan!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



일본 외무성이 주관하는 3만명 규모의 아시아대양주국가와의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 2.0'의 일환으로 한국 대학생과 고등학생 90여 명이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방일연수단은 주한일본대사관, 주부산총영사관, 주제주총영사관이 여러 행사와 에세이 등을 통해 선발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단원이 구성되었다. 한국청소년방일연수단은 도쿄, 히로시마, 오사카, 교토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Cool Japan'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홈스테이', '대학교 · 고등학교 방문', '기업방문', 미야지마(宮島) · 이쓰쿠시마(厳島)신사,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기요미즈테라(清水寺) 등 '일본세계유산 방문', 유카타(浴衣) 입기와 유젠염색(友禪染め) 등 '일본 전통문화체험'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일본의 가정을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와 일본인 친구를 사귄 수 있었던 '대학교 · 고등학교 방문'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다.

이들이 귀국한 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방일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연수의 감상과 앞으로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발견하는 여정 방일연수를 다녀와서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3학년  
임은성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간 방일연수단 단원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Cool Japan 리포터로 선발되어 지금까지 몰랐던 일본의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로서 연수를 떠났던 것이다. 처음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 연수도 개인적으로 떠나는 일본 여행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었다. 도쿄뿐만 아니라 히로시마, 오사카, 교토를 방문하는 일정을 보며 못 가본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가벼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연수를 경험하면서 조금씩 내 짧은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일본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첫 방문지인 도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외무성 방문이었다. 역사와 영토문제로 갈등하는 양국의 외교 현안에 대해 학생들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듣고 질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던 정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 공부만 필요함을 절감했다.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차원을 넘어 이러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양국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미래 세대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다.

도쿄의 마천루와 세련된 도시의 모습을 뒤로 하고 신칸센을 타고 히로시마로 향했다. 먼저 도쿄와 대비되는 히로시마의 빼어난 자연 경관에 감탄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이쓰쿠시마 신사를 관람하며 일본 전통의 건축미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원폭 돔을 방문해서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조문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전쟁의 공포함과 양국의 역사적 아픔을 가슴에 묻고 이제는 '평화'의 도시가 된 히로시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문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1박 2일간의 잊지 못할 홈스테이도 히로시마 아키오타정(安芸太田町)에서 체험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홈스테이를 일본의 산촌 마을에서 한다는 사실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지만, 우리를 친자식처럼 맞이해주는 가족 분들을 만나 그들의 아들, 딸이 되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기 안 왔다면 정말 소중한 추억 하나를 잃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로만 배운 일본인론(日本人論) 그리고 일본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만난 '또 하나의 가족'에게 느낀 따스한 정이 그 벽을 허물고 마음까지 전해졌다. 이 체험을 통해 부모님과 비슷한 홈스테이 가족 분들의 모습과 마음을 발견하고, 이웃나라 사람으로서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내게 선입관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찾아가는 값진 여정이었다. 관광 여행에서 접하는 일본의 외면적인 모습 그리고 책과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일본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지금까지 간과했던 일본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홈스테이와 도쿄, 히로시마에서 이루어졌던 일본 대학생과의 교류처럼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공유점을 찾아가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기초는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이해하고, 서로의 매력과 공통점을 찾아가는 노력에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양국 청소년들이 이번 연수처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교류를 지속한다면, 과거의 갈등과 아픔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의 미래를 굳건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방일연수의 값진 체험과 현지에서 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방일연수단의 일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양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활기

#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